

진실과 상식의 승리

- 출처 : 강기훈 유서대필 조작사건 진상규명 대책위원회
- 저자 :
- 발행일 :

1. 내용의 일부 혹은 전체를 인용, 발췌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저자와 출처를 밝혀 주셔야 합니다.
2. 본 자료는 <http://www.kdemocracy.or.kr/KDFOMS/> 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민 주 화 운 동

당신이 만든 우리의 희망입니다

민주주의 발전과 통일한국의 미래.
대한민국의 저력을 이야기 할 때마다
민주화운동의 소중한 경험과 정신을
힘주어 들려주십시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우리들의 소중한 뜻이 펼쳐지도록
국민들과 함께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서울시 중구 정동 34-5 배재정동빌딩 1-3층
전화 02-3709-7500 팩스 02-3709-7530
<http://www.kdemocracy.or.kr/>

진실과
상식의 승리

강기훈 유서대필 조작사건 진상규명 대책위원회

1991. 4. 27.경부터 같은 해 5. 8. 까지 사이의 일자 불상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 김기설의 명의의 유서 2매를 작성함에 있어, 김기설은...
고등학교 1년을 중퇴한 학력의 소유자로 지식과 문장력이 부족함에도 피고인의
지식과 문장력을 이용, ... 유서를 작성하여 줌으로써 .. 김기설의 분신자살
결심과 결행을 용이하게 도와주어 ... 김기설의 자살을 방조한 것이다 <검찰의
'자살방조' 공소장에서>

피고인은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공산주의자의 10대
신조를 맹신하고... 목적을 위해서는 동료의 생명까지도 혁명의 도구로
사용하는 좌경혁명분자로서의 피고인의 비인간적, 반인륜적 성향을 여지없이
드러낸 것으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지상의 이념으로 삼고 있는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체제 아래서는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천인공노할 범죄라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검찰 '논고' 중에서>

잠시 후면 검찰청으로 떠나게 될 지금의 제 심정은 진실하기에 뗏뗏하면서도
한편으로 하소연할 길 없는 억울함과 무거운 마음이 교차함을 숨길 수
없습니다. 결백한 저에게 유서대필자, 자살방조범이라는 범죄자의 굴레를
씌우려드는 공권력에 맞서 제 양심을 지키는 일이 결코 쉽지 않으리라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고한 개인이 권력의 힘에 의해 끝내 범죄자로
낙인찍히게 된다면 그런 사회에서 인간에 대한 어떤 신뢰와 희망을 가질 수
있단 말입니까? <강기훈씨 '검찰출두 성명서' 중에서>

진실을 짓밟히는 우리의 고통은 한순간일 것이나, 진실을 짓밟는 자들에 대한
양심의 역사적 심판은 영원할 것입니다. <변호인 '상고이유 보충서'에서>

이제 부끄러운 과거와 단절이 필요하다

1991년 4월 대학생 강경대군이 백골단의 곤봉에 맞아 타살된 후 많은 분들이 민주화를 위해 분신하였다. 당시 위기에 몰린 노태우정권은 분신으로 분노를 표출하는 대학생들의 숭고한 희생에 대해 5월 7일 고위당정회의, 5월 8일 오전에 치안관계대책회의를 갖고 분신의 배후를 조사하겠다는 어이없는 결정을 내렸다. 5월 8일 재야운동의 지도부인 '전국민주운동연합'에서 활동하고 있던 김기철씨가 분신하자 전민련 동료인 강기훈씨를 분신 배후자로 지목하였다. 검찰은 김기철씨가 고등학교를 중퇴하여 유서조차 쓸 수 없다는 비상식을 근거로 내세우기도 하였으며, 자신을 희생하여 민주화를 앞당기기 위하여 헌신하는 활동가들을 목적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할 사람이라는 식의 편견을 동원하여 강기훈씨를 유서를 대신 써주어 자살을 방조했다는 유례가 없는 혐의로 구속하였다. 검찰은 강기훈씨와 전민련을 공격하여 노태우정권의 위기를 넘기게 하는 권력의 주구 노릇을 충실히 해냈다.

지난 날 권력을 지닌 자들은 자신의 과거 행동에 대해 반성하지 않는다. 강기훈씨 유서대필 조작사건에서 유일한 필적 증거를 제시하였던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문서분석실장 김형영이라는 자가 허위감정 의혹으로 두 번이나 구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나 법원은 강기훈씨의 진실이 밝혀질까 두리워시인지 뇌물수수, 사기죄만 인정할 뿐 허위감정은 없었다고 강변하였다.

우리가 후대에게 부끄러운 역사를 물리주지 않으면 이제 왜곡된 과거와의 단절이 필요하다. 그것은 과거의 진실을 밝히는 용기에서 출발한다. 우리 사회 곳곳에서 이러한 용기는 다양하게 표출되고 있으며, 민주주의는 조금씩 전진하고 있다. 하지만, '과거사 진실규명문제'가 정치권에서 여전히 표류하고 있다. 강기훈씨 필적 감정문제와 비슷한 백여년전 프랑스의 드레퓔스 사건은 단순히 유대인 출신 드레퓔스 대위 개인의 결백만을 증명한 것이 아니라 공화제를 훼손하려는 극우파의 폭동과 반유대주의 등 인종차별로부터 프랑스 대혁명의 민주주의를 구원한 사건으로 후대인 우리에게 세계사적인 인류의 긍지로 알려지고 있다.

이제 한국 사회는 한 단계 더 높은 민주주의의 역사를 만들어야 한다. 강기훈씨의 결백을 통해 부끄러운 과거를 청산하고 사회적 성찰과 진진을 통해 어떠한 시대의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은 '민주주의의 상식'을 확고히 뿌리내리게 하여야 한다. 이것은 어느덧 두 아이의 아빠가 되어 있는 그에게 우리 사회가 마땅히 돌려주어야 할 진정한 '화해'의 노력일 것이다.

강기훈 유서대필 조작사건 진상규명 대책위원회
상임대표 이 창 복(정기대 이사장)

유서대필 조작사건 일지

1991년

- 4월 26일 [명지대 강경대 학생이 시위 도중 백골단에 의해 살해됨.
- 4월 27일 [연세대에서 제마단체는 '고 강경대 열사 살인폭력 규탄과公安통치 종식을 위한 범국민대책회의(대책회의)'를 결성.
- 4월 29일 [대책회의 주최 제1차 국민대회 열림. 광주에서 박승희 학생 분신.
- 5월 1일 [인동대 김영균 학생 분신.
- 5월 3일 [경원대 천세용 학생 분신.
- 5월 4일 [2차 국민대회 열림.
- 5월 5일 [고 김기설, 방통대 동아리 '소리새벽' 회원인 이지혜, 송국영에게 분신 의사를 처음 밝힘.
- 5월 6일 [한진중공업 노조위원장 박창수씨 안양병원에서 의문의 죽음.
- 5월 7일 [오후 7시30분경 김기설, 홍성은과 만나 분신 결의를 밝히며 수첩을 건네줌. 오후 9시30분 이지혜는 대책회의 관계자에게 김기설의 분신결의를 전해줌. 곧바로 전민련 관계자들이 김기설을 찾기 시작함. 오후 11시경 임근재는 북가좌동 김기설의 자취방에서 김기설을 만남. 대책회의 상황실에서 이보은을 추가로 보내 김기설을 보호, 분신 계획 만류. 이후 전민련은 연세대에 사람을 배치하여 분신 방지 위해 노력.
- 5월 8일 [오전 5시, 김기설 대학로에서 같이 있던 임근재와 이보은에게 전화건다고 하며 사라짐. 오전 6시30분 김기설 홍성은에게 전화,

'열심히 살아라'고 하며 신촌 부근이라고 밝힘.

오전 7시 30분, 정해창 비서실장 주재로 삼청동 안가에서 서동권 안기부장, 최병렬 노동부장관 등이 치안관계청관회의를 열고 잇따른 분신 자살에 대한 배후 수사 결정
오전 8시 7분 김기설, 서강대 건물 옥상에서 분신한 후 투신.

정구영 검찰총장, 분신자살사건에 조직적 배후 세력에 있는지 조사하라고 전국 검찰에 지시.

전재기 서울지검장, 김기설 분신자살과 관련 강신욱 강력부 부장검사 등 6명으로 진담조시반을 편성하여 조사하도록 지시.

검찰, 박창수 가족의 반대에도 영안실 벽을 뚫고 시신 탈취하여 부검 실시.

서강대 박흥 총장, '죽음을 선택하는 아동의 세력이 있다'는 내용의 기자회견.

12시 홍성은, 연세대 대책회의 사무실에 김기설의 수첩을 전달.

5월 10일 [김기설 추모집회
윤용하, '누가 분신을 배후 조정한다 말인가, 노태우는 퇴진하라'는 말을 남기고 분신(광주).

5월 11일 [전민련, 검찰의 요구로 김기설의 필적이 담긴 사회국 업무일지 제출.

5월 12일 [김기설 장례식(마석 모란공원).

5월 13일 [남기춘 검사, 김기설이 근무했던 부대에 가서 필적 입수(감정의뢰도 없고 필적 은닉). 오후 10시 검찰, 홍성은 집을 수색하고 홍성은 불법연행(15일 밤 검찰수사관과 잠시 집에 들린 것을 제외하고 17일까지 약 1백 시간 동안 불법 수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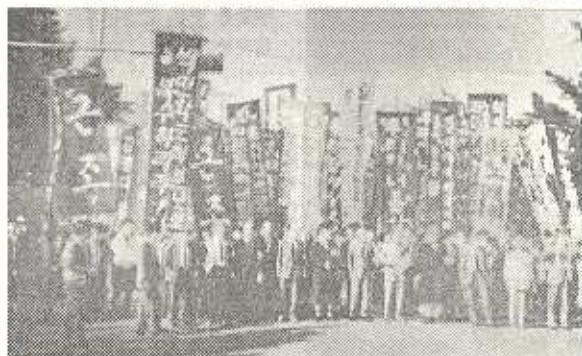
5월 15일 [검찰, 강기훈이 85년에 작성한 진술서를 필적감정 의뢰.

5월 16일 [검찰, 이영미를 강제연행하고, 강기훈 집을 수색.

5월 17일 [검찰, 홍성은 진술에 대해 공판기일전 증거보전 절차 미칭(재판장 이현승 판사).

5월 18일	고 강경대 학생 장례식. 이정순씨 분신(연대앞). 국민일보 강기훈의 유서대필 보도. 범국민대책회의 명동성당 농성 시작, 강기훈 농성 함류.	5월 30일	KNCC 인권위, '김기설씨 분신사건 진상조사위원회' 구성.
5월 19일	전민련, 김기설의 수첩을 대책회의 자료함에서 찾음.	6월 7일	강기훈, 김수환 추기경에게 자신의 결백을 호소하는 편지 보냄.
5월 20일	전민련, 명동성당에서 김기설의 수첩과 강기훈의 옥중편지 공개 후 수첩 검찰에 제출.	6월 12일	천주교 서울대교구 정평위, 강기훈 자진출두 권유.
5월 21일	김기설이 4월18일 작성한 메모를 당시 건네받은 송의여전 학생이 공개 검찰, 김정도 하기 전에 수첩 조작 가능성을 흘림(서울신문, 조선일보 22일 보도,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25일 감정결과 통보) 윤석만 검사, 한겨레신문이 필적을 의뢰한 시설 감정원 압수수색. 성남 터사랑 청년회, 김기설의 필적이 있는 방명록 공개(각장에 여러 사람의 서명이 담겨 있는 것으로 김기설이 한정덕이란 가명으로 서명함, 유서와 동일한 흘림체 필적).	6월 15일	KNCC 인권위, 강기훈 '대필 안했다는 심증'이라는 1차 조사결과 발표. 김수환 추기경, 명동성당에 경찰력 투입 반대 표명.
5월 22일	전교조 강원지부, 3월23일에 작성된 전교조 원주지회 개소식 방명록의 김기설 필적 공개.	6월 18일	성남에서 홍성은 은신처 발견, 한겨레 취재기자 경찰에 연행.
5월 23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NCC) 인권위원회, 검찰에 공개수사 요청.	6월 24일	강기훈, '피고인으로서가 아니라 검찰의 부도덕함과 타락을 증언하는 증인으로 법정에 서겠다'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검찰에 자진 출두.
5월 24일	전민련, 김기설 작성의 성남 민청련 상황일지 공개(김기설이 활동했던 성남 민청련의 활동일지로 수개월간의 활동내용이 기록되어 있음. 이 일지에는 김기설의 흘림체와 정자체 두 가지 필적이 모두 발견되어 정자체만을 김기설의 필적으로 주장해 온 검찰의 주장을 뒤엎는 자료임).	6월 29일	검찰, 서준식 전민련 인권위원장을 보안관 찰법 위반으로 구속.
5월 25일	검찰, 전민련 제출 김기설 수첩이 조작됐다고 발표. 국민대회 도중 성대 김귀정 학생 사망.	7월 2일	검찰, 소위 '유서대필' 배후관련 참고인 14인 전국에 지명수배.
5월 26일	신상규 주임 검사, 자살방조 혐의로 강기훈의 사전구속영장 신청함. 김전종 판사 영장 발부.	7월 1~4일	검찰, 업무일지가 세 사람에게 의해 작성된 것을 알고 임무영을 새로운 대필혐의자로 추적.
		7월 6일	검찰, 임무영 전민련 사회부장 연행, 대필 혐의 없자 집시법 등으로 보복 구속.
		7월 12일	검찰, 강기훈을 기소하면서 사건수사 발표.
		7월 14일	강기훈 후원회 발족.
		7월 18일	KNCC 인권위원회, 일본인 김정인 오니시

5. 18. 강경대 학생의 장례행렬 모습. 전국적으로 60만명이 넘는 인파가 시위에 참여한 이날, 검찰은 강기훈씨의 유서대필 혐의를 발표하였다.



	의 필적감정결과 발표
7월 20일	변호인단, 강기훈 보석신청.
7월 25일	강신욱 강력부장, 부장검사 서열 1위인 형사 1부장에 임명됨.
8월 2일	법원, 강기훈 보석신청 기각(노원욱 부장판사).
8월 21일	검찰, 강기훈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추가기소.
8월 28일	강기훈 1차공판, 변호인단은 모두진술에서 일시 장소가 특정되지 않아 '형사소송법상의 기본원칙조차 무시되고 있는 이 사건 공소는 당연히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 강기훈은 모두진술에서 '유서대필 용의자로 몰린 지난 3개월 동안은 본인에게 가장 고통스럽고 어려운 시기였다', '이번 유서대필 사건은 본인을 희생양으로 삼아 불순한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려는 헌정권의 비열한 의도에서 시작된 것이다'라고 주장.
9월 11일	2차 공판.
9월 25일	3차 공판.
10월 9일	4차 공판(국과수 김형영 문서실장 증인신문).
10월 23일	5차 공판(김형영 증인신문 계속).
11월 6일	6차 공판(홍성은 증인출두 거부). 변호인측, 동우전문대 학내 폭력사건 관련 녹취록(홍성과 김기설이 같은 노트에 녹취한 것)과 분신 당일 복사한 수첩 복사본 제출.
11월 7일	7차 공판. 홍성은에 대한 증인신문. 검찰측 요구 비공개리에 진행. 자신의 수첩에 쓰여진 메모가 강기훈이 쓰지 않은 것은 분명하다며 검찰에서의 진술을 반복.
11월 20일	8차 공판. 강기훈 변호인단, 김기설이 3백만원을 빌리고 써준 각서를 증거로 제출.
11월 27일	9차 공판. 일본인 감정인 오니시 증인신문.
11월 28일	10차 공판. 일본인 오니시 증인신문 계속.
12월 4일	11차 공판. 검찰, 강기훈에게 징역 7년과 자격정지 3년을 구형. 변호인단 장문의 변론요지서를 통해 강기훈의 결백을 주장(거짓이 진실을 이기는 사회는 정의사회가 아닙니다).
12월 14일	서준식, 집행유예로 석방.

12월 20일	12차 공판. 재판부(노원욱 부장판사, 이영대 정일성 배석판사), 징역 3년에 자격정지 1년6월을 선고.
---------	--

1992년

2월 9일	MBC,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문석분석실장 김형영의 뇌물수수 및 허위감정 폭로.
2월 11일	서울형사지방법원, 국과수 감정을 배척하는 첫 판결.
2월 17일	검찰, 국과수 김형영 문서분석실장을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 허위감정은 없었다고 발표.
2월 27일	전국연합 등 재야 12개 단체 '유서사건 강기훈씨 무죄석방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 결성.
3월 12일	항소심 첫 공판.
3월 26일	항소심 2차 공판.
3월 27일	항소심 재판부, 국과수 문서감정에 관한 기록검증.
3월 30일	항소심 3차 공판. 구속된 김형영 증인신문.
4월 2일	항소심 4차 공판. 홍성은 불출석(홍성은 93년 10월 11일 기자회견을 통해 하루 전날 검찰 수사관이 찾아와 압력을 행사하여 출석할 수 없었다고 밝힘).
4월 9일	항소심 5차 공판. 검찰, 징역 7년에 자격정지 3년을 구형.
4월 13일	공대위, 검찰(남기춘 검사 등)이 필적을 은폐했음을 김기설의 군복무 당시 정훈장교인 이찬진 변호사의 제보로 밝힘. 강기훈 변호인단 변론재개 신청.
4월 15일	공대위, 명동성당 앞에서 '강기훈의 무죄석방과 검찰의 필적은폐 규탄' 집회
4월 16일	박형규 목사 등 각계인사 4백여명은 '강기훈 무죄석방을 위한 4백인 선언' 발표. 김수환 추기경 등 23인 공정한 재판을 요구하는 서한을 항소심 재판부에 전달.
4월 20일	항소심 재판부(임대화 부장판사, 윤석종 부구속 배석판사), 강기훈에게 징역 3년에 자격정지 1년6월 선고.

- 7월 20일 김대중 민주당 대표, 장을병 성균관대 총장, 김승훈 신부 등 각계인사 2백13명, 공정재판을 촉구하는 서한을 대법원에 제출.
- 7월 21일 예정 목회자 공정재판을 위한 금식기도회 개최.
- 7월 24일 대법원(주심 박만호, 김상원 박우동 윤영철), 강기훈 유죄 확정.

1993년

- 1월 19일 전국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 강기훈 석방 탄원서를 김영삼 대통령 당선자에게 제출.
- 1월 27일 대한예수교장로회 인권위, 강기훈 석방 탄원서를 김영삼 대통령 당선자에게 제출.
- 2월 6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 김영삼 대통령 앞으로 '강기훈에게 유죄를 선고한 것은 국민들 모두에게 받아들일 수 없는 처사'였기 때문에 강기훈의 사면을 바라는 탄원서 제출.
- 3월 6일 사면석방에서 강기훈 제외.
- 5월 23일 석탄일 시면에서 강기훈 제외.
- 10월 23일 SBS <그것이 알고 싶다>의 강기훈 유서대필 조작사건, 방영 하루 전날 불방 결정. 제작진 항의.

1994년

- 8월 17일 강기훈 대전교도소에서 만기출소.

1998년

- 3월 15일 SBS 문성근의 다큐세상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 재방영

2000년

- 7월 4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에서 유서 사건을 지휘한 강신욱 대법관 후보에 대한 임명 제청 반대 성명을 발표.
- 7월 6~7일 한정사상 처음으로 국회에서 대법관 인사 청문회가 열림. 천정배, 추미애, 이재오 의원 등 강신욱 대법관 후보에게 유서사건 조작 및 강압 수사 여부에 대해 추궁함.

- 7월10일 국회에서 자유투표로 6인의 대법관 임명 동의안 통과. 강신욱 대법관 반대표가 무려 69표나 나옴.

2001년

- 7월 3일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에서 고 김기설 열사에 대해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함.

2002년

- 4월 28일 MBC <이제는 말할 수 있다> '91년 5월 죽음의 배후' 편에서 당시 김기설 유서대필 사건이 조작되었다는 증거를 밝힘.

2004년

- 9월 7일 MBC <PD수첩> '진실을 말할 수 있다-과거사 규명' 편에서 강기훈 유서대필 조작사건이 과거사 규명의 핵심사안 하나로 보도됨.
- 11월18일 경찰 '과거사 진상규명위원회'가 정식 발족되어 활동.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 등 10건을 조사 대상으로 선정함.

2005년

- 3월 29일 강기훈 유서대필 조작사건 진상규명 대책위원회 발족.

5. 12. 김기설씨의 장례식(서경대). 김씨는 유서대필 시비를 통해 김기설씨가 분신으로 노태우 정권에 항거했던 순수한 동기를 완전히 왜곡시켰다.



건전한 상식의 승리를 위하여

13년 전인 1998년 2월에
‘유서사건’ 강기훈씨 무죄선명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자료집의 머리글로 쓴 이 글을 그대로 실습니다.
이 글은 불의한 권력이
오늘에도 여전히 힘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망할 것들!

권력이나 쥐었다고

자리에 들면 못된 일만 꾸몄다가

아침 밝기가 무섭게 해치우고 마는

이 악당들아,

탐나는 말이 있으면 빼앗고

탐나는 집을 만나면 제 것으로 만들어

그 집과 함께 임자도 좋으리 삼고,

밭과 함께 밭 주인도 부려 먹는구나,

나 아뢰가 선언한다.

나 이제 이런 자들에게 재앙을 내리리라.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러나 시원한 말씀입니다. 이것은 바로 미가 예언서 2, 1-2의 성서말씀입니다. 성서는 진리의 말씀이기에 거짓과 불의를 고발하여 정의를 세우고, 사랑을 재촉합니다. “유신만이 살 길이다”라고 외쳐대던 70년대 말 어느 목사님이 설교 중, 위의 성서말씀을 인용했다가 검찰에 의해 구속되고 성서말씀이 그대로 기소장에 실려 고발되었습니다. 그런데 법정에서 재판 도중 위의 내용은 바로 성서말씀의 인용이라는 변호사들의 항변을 듣고는 “아니다”라고 펄펄 뛰면서 그런 성경을 가져와 보라고 했다가 성서를 눈 앞에 갖다 대니까 멧쩍어 하면서 기소장에서 그 내용을 말도 없이 슬 그머니 빼버린 일이 있었습니다.

성서를 우리는 하느님의 법(法)이라고도 부릅니다. 하느님의 법은 정의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바로 세워진 정의에서만 참사랑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의의 교육을 사랑의 채찍이라 부르며

불의한 행동을 폭력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느님의 법을 반영한 인간의 법과 질서, 그것을 책임맡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법의 이름으로 폭력을 휘두르고 있습니다. 권력욕, 명예욕, 소유욕 등 불의한 욕심 때문에 선한 사람들이 핍박당하며 죽어가고 있습니다. 성서는 바로 조작과 누명에 의한 의로운 이들의 억울한 죽음, 곧 순교자들의 외침과 기도를 그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지도자라는 것들, 사제라는 것들, 어른이라는 것들, 예언자라는 것들’(미가 3, 9 이하 참조)이 거짓재판과 불의에 야합할 때 하느님이 정의, 곧 분노의 말씀이 무섭게 하늘로부터 내리치게 마련입니다. 그것이 곧 민중의 힘입니다. ‘백성의 소리가 하늘의 소리(vox populi, vox Dei)’라는 라틴어 격언은 바로 진실한 삶과 체험의 위대함을 가중한 성서의 또다른 표현이기도 합니다.

여기, 이 땅에 권력의 하수자로 전락한 검찰권의 폭력에 맞서 의로운 이들이 떨쳐 일어섰습니다. 정의를 바로세우기 위해서입니다. 조작과 불의 앞에서 분명히 “아니다!”라고 외치며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는 한, 아직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그런 희망이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줍니다.

검찰이 사랑의 채찍으로 교화되기를 바랍니다.

함 세 웅 신부
(강기훈 유서대필 조작사건 진상규명 대책위원회 공동대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

검찰은 이미 알고 있었다

14년이 흘렀다.

1991년 5월 8일 김기설의 분신 사건 이후 함께 일하던 동료의 자살을 도와주었다는 '오명'을 뒤집어 쓰고, 금세 제자리를 찾을 것 같았던 사건의 진상은 구속, 수사, 재판, 대법원의 유죄확정 판결로 적어도 법률적으로는 되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버렸다.

검찰의 사건 조작과 증거 은폐에 의한 수사,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엉터리 필적 감정, 사법부의 한심한 판결 등 그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되어 있는 것이 없는데도 저들은 지극히 온당한 민주주의적 절차에 의해 사건이 마무리된 것처럼 주장한다. 당시 수사를 맡았던 검사들은 대법관으로, 특수부장으로, 지청장 등으로 아무런 장애 없이 승진을 하여 대부분 현직에 있고, 판사들 역시 변호사 등으로 잘 나가고 있다. 국가 권력이 이렇게까지 추악했던 적이 또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정권의 안위를 위해 무고한 한 개인을 거대한 허위와 거짓의 덩어리로 덮어씌운 자들은 여전히 한 치의 반성도 없다.

하지도 않은 일에 대한 사건의 당사자로서 십수 년 전의 고통과 분노를 지금껏 감내하면서 단 한순간도 용납할 수 없는 시간을 보내고 있고, 온전하게 사실이 드러날 희망에 대한 기약도 없이 흘러온 세월의 무게에 정신적 육체적으로 지쳐가는 한 인간의 모습을 저들은 과연 알고는 있는지 묻고 싶다. 이러한 비정상적이고 비정상적인 상태가 지속되는 것이 비단 한 개인과 가족, 같이 일했던 선후배 몇 명의 고통일 뿐이겠는가. 결국 가장 추악하고 부끄러운 역사를 수놓은 검찰과 사법부의 명예이자 당장 청산하지 않

으면 안 되는 오늘의 과제가 아니겠는가.

1심 재판의 최종 진술에서 '나는 사법부에게 상식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고 했다. 그리고 지금은 마지막으로 또 한 번의 기회를 주는 심정이다.

수사 당시 검찰은 적어도 검찰 스스로 의도적으로 은폐한 각종 필적 자료와 세 사람이 작성한 업무일지를 한 사람이 쓴 것이라고 감정한 사실을 알았을 때 사건을 종결하고 수사를 그만두었어야 했다. 지금은 대법관이 된 강신욱 검사와 사건의 실무 총책임자였던 신상규 검사는 적어도 이미 91년 6월말경 검찰청 11층 조사실에서 "좀 무리는 있지만 여하간 한번 해보자(재판을 하자)"고 말했을 정도로 이미 내 무고함을 확신하고 있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재판에서 검찰의 주장이 이길 것이라는 확신도 동시에 갖고 있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할 만큼은 아니어도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필적 감정서'가 있는 한 무고한 사람을 희생시키는 것쯤은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검찰과 사법부는 부끄러운 과거의 일을 숨기고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을 안은 심정으로 살아온 세월에 이제 마침표를 찍어야 한다. 온전한 상식으로 세상을 보는 것, 그리고 그들 스스로 마음 깊은 곳에서 알고 있는 사실을 드러내는 것이 필요하다. 바로 지금이 그 때다.

사건의 피해자가 주는 기회와 이량은 더 이상 없을지 모른다. 이것이 마지막 기회이다.

강기훈

진실이 두려운 검찰

1. '권력의 시녀'에서 '권력의 주역'으로 나선 검찰

1991년 4월 26일, 스무 살도 못 되는 명지대학교 1학년 강경대군이 학교 앞에서 학내문제와 관련한 시위를 하다가 백골단에 맞아죽는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났다. 이 사건은 순식간에 커다란 분노를 일으켰으며, 재야세력과 학생들은 '고 강경대 열사 살인폭력 규탄과 공안통치 종식을 위한 범국민대책회의'를 결성하여 노태우 정권에 맞섰다. 4월 29일 전남대 박승희, 5월 1일에는 안동대 김영균, 5월 3일에는 정원대 천세용 학생이 잇따라서 노태우 정권에 항의하여 분신하였다. 들끓어 오르는 분노는

대책회의 주최의 5월 4일 '백골단 해체 선포의 날' 평화 시위에 엄청난 양의 최루탄이 난무하는 속에서도 20여 만 명이 참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정세의 변화는 노태우 정권을 '6공 최대의 위기'로 몰아넣었다. 5월 6일 한진중공업 박창수 노조위원장이 구치소 수감 중 입은 상처를 치료받던 병원에서 의문의 변사체로 발견되어 노동계의 분노를 증폭시켰다.

5월 8일 오전 8시경 전민련 사회부장 김기설 씨가 서강대 건물 옥상에 유서를 남긴 채 분신, 투신하였다.〈자료 ①〉 김기설 씨가 분신한 직후 검찰은 현장 조사를 통한 증거를 확보하기에 앞서 '배후세

①

아버지. 어머니 -
어머니는 임니다.
모든 이해를 일방적으로 생각은
하마는 여러가지 의미가 있거나
생각합니다. 어지껏 한번도 아버지, 어머니에게
흔드는 것을 해오지 못했지요.
하지만 이제 기쁨이 아버지 어머니의 아들이
아닌 민족의 아들이 된 것 신로하네요
마지막 혼로는 하려 합니다.
모든 종제는 대체로 서독시에 위임하셔요.
정미로 선택이로 서독시정신외장요까지
위임하셔요. 제발요부터 아끼고 사랑하는
성배 남들 있습니다.

- 기설 -

단순하게 병행운동의 도하선이 되려함이
아닙니다. 역사적 이정표가 되려함이
아닙니다. 아늑한 많은 현실과는
다르게 슬프기 아프기 살아야
기쁨의 민중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하는
국민욕이 많은 결혼이겠지요.

노태우 정권도 되려해야 합니다.
민라장은 해체 되려야 합니다.
우리에게 슬픔과 아픔만을 안겨주는
지금이 정권도 꼭 타도되려야 합니다.

더이상 우리에게 슬픔과 아픔을
안겨 주지 말아야 합니다.

이제 우리들은 모두 하나가 되어 리악스러운
행방으로 일심아로 노태우 정권을 타도해
전명정을 선포하고 민중계급 정체를 위한
행정을 위해 모두가 하나 되려야 합니다.

- 김 기 설 -

검찰은 유서대필 사건을 조작함으로써 고인의 마지막 유언과 명예를 훼손시켰다.

력에 의한 분신자살'이라고 앞질러 발표하였다. 김기설 씨가 분신할 당시 다른 사람이 있었다거나 옥상으로 뚫히는 문이 잠겨 있어 혼자 열 수 없었다는 식의 여러 의혹을 제기하였으나, 이는 하루도 채 안 되어 모두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검찰은 이에 대해 일언반구의 해명도 하지 않았다. 더욱이 검찰은 박창수 노조위원장의 시신을 부검한다며 가족 등의 반대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영안실의 벽까지 뚫고 들어가 시신을 탈취하는 만행을 저지른다.

물론 수구언론과 일부 지식인들도 분신 배후가 있다는 선동에 나선다. 김지하 씨는 5월 5일자 조선일보에서 "나는 너스레를 좋아하지 않는다. 잘라말하겠다. 지금 곧 죽음의 찬미를 중지하라"며 '죽음의 고향'을 당장 건너치워라'고 망발을 서슴지 않으며, 서강대 박홍 총장도 성경에 손을 얹은 채 죽음을 선동하는 어둠의 세력이 있다고 겁을 준다.

5월 7일 청와대 고위당정회의와 5월 8일 오전 7시에 있었던 청와대의 치안관계대책회의에서 분신 배후에 대해 천저히 수사를 해야 한다는 결정을 하였고, 5월 8일 정구영 검찰총장이 전국 검찰에 직접 지시한다. 노태우 정권이 들어선 이후 검찰은 공안합수부 등을 통해 합법을 가장하여 공안통치의 주역으로 나서기 시작하였으며, 강기훈 유서대

필 조작사건을 통해 '권력의 시녀'에서 '권력의 주구'로 자리잡게 되었다. 그리하여 6공화국은 검찰 공화국이 되었다.

2. 검찰의 필적 은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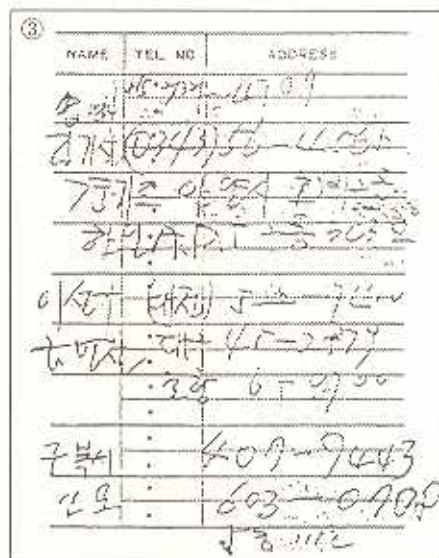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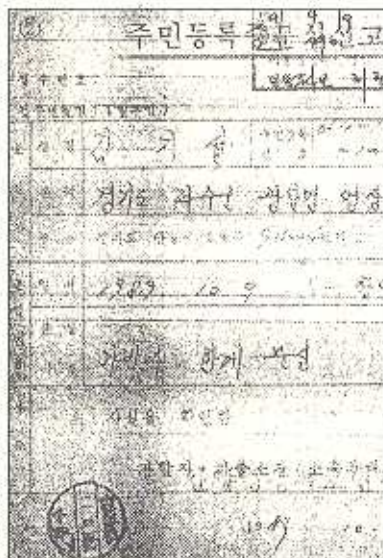
남기춘 검사(현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장)

필적 은닉 과정 진상규명 필요

김기설 씨가 분신한 당일부터 검찰의 수사는 신속하게 이루어졌다. 특히, 김기설 씨의 필적을 확보하기 위해 김 씨의 주민등록상의 집(안양시 호계동)이나 동사무소에까지 가서 필적을 입수하게 된다. 이때 동사무소에서는 주민등록분실신고서를 수집했으나(자료 ②), 호계동 집에서는 필적을 찾지 못했다고 발표했다(중앙일보 91년 5월 9일자, 3면). 그러나 1998년 3월 15일(원래는 1993년 10월 24일에 방영할 예정이었으나 하루 전날에 방영 취소)에 방영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 의하면 이때 검찰은 가족으로부터 모든 필적을 수집해간 것으로 드러났다.

남기춘 검사(현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장)는 5월 13일 김기설 씨가 근무했던 군부대에 가서 필적을 입수하게 된다(자료 ③). 특히 이때는 유서가 대필

검찰은 가족, 군부대 동료에게서 김기설 씨의 정자제, 흘림체 필적을 모두 입수하였다. 그러나 유서와 주민등록분실신고서의 정자제 글씨만을 발췌검정 회피하였다. 특히 검찰은 김기설 씨가 군대에서 써준 수첩 글씨를 수사기록에 입수 근거도 남기지 않은 채 은닉하였다.



되었다는 검찰의 선입견이 없어야 할 시점이다. 유서필적과 김기설 씨의 글씨가 다르다는 필적감정이 나온 것은 그 후의 일이다. 따라서 김기설 씨가 작성한 필적이라면 그 근거를 남겨야 할 때였다. 특히 김기설 씨 필적이라고 남기춘 검사에게 제출하였던 서기선 하사는 김기설 씨가 제대하는 날 그 때 함께 제대하던 동료 2명의 주소와 전화번호를 자신의 수첩에 직접 써주었으며, 김기설 씨 자신의 수첩에 주소를 적어주고 있는데 전역병을 태우는 버스가 오자 급하게 써내려갔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남기춘 검사는 이러한 진술을 듣고도 수첩을 통째로 제출받지도 않고 김기설 씨의 필적이 있는 부분만을 찢어낸 후에 필적 입수 사실을 은폐하였다. 당시 서기선 하사와 함께 남기춘 검사를 만났던 이찬진 변호사(당시 청훈장교)가 2심 판결만을 앞둔 시점에 제보하게 되어 필적 은폐 사실이 드러났다.

당시 수사를 진행하던 담당 검찰은 진민련이 김기설 씨의 필적을 수집하여 제출하면 방명록 전체를 가져오지 않고 김기설 씨 필적 부분만 찢어서 신뢰할 수 없다는 식으로 배척하였으나, 남기춘 검사는 김기설 씨의 필적 부분만을 찢어서 주머니에 넣고, 진술서도 받지 않았다고 한다. 더구나 남기춘 검사가 입수한 필적은 서기선 하사 눈앞에서 직접 쓴 필적이었다. 검찰이 김기설의 것으로 발표한 필적(주민등록신고서, 큰누나에게 선물한 책표지 글씨, 군 시절 친구 안혜정에게 보낸 편지) 중에 김기설 씨가 쓰는 것을 직접 보았다는 증언은 없었으며, 유서를 쓴 시점과 가장 가까운 것이었다. 이찬진 변호사도 당시 남기춘 검사가 저녁 식사자리에서 유서필적과 같은지 다른지에 대해 묻기까지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필적은폐 사실이 드러나자 검찰은 진본을 공개하지 않은 채 지방에서 팩스로 보낸 필적만을 공개하였다. 필적 원본이 공개되어야 하며, 어떤 과정을 거쳐 은닉되었는지 진상이 밝혀져야 한다. <자료 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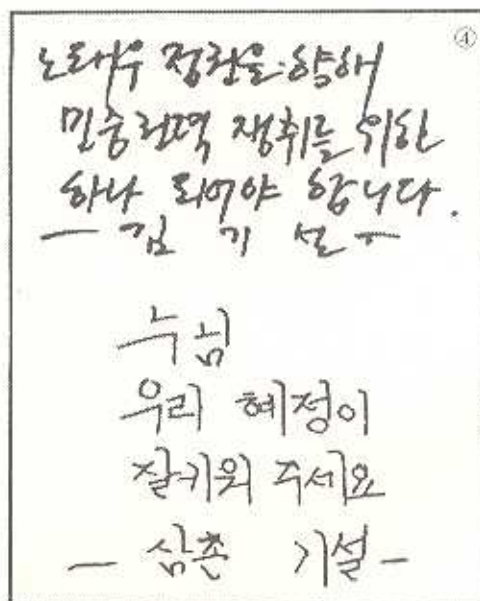
김기설 씨는 5월 4일 진민련 사무실 근처의 여

관에서 후배들과 술을 마시면서 자살 결심을 밝힌 바 있다. 이날 김기설 씨가 여관 숙박부를 작성하였는데, 검찰은 당연히 이 여관에 김기설 씨가 투숙한 사실을 확인하고 필적을 확보하기 위해 수사에 나섰을 것이다. 그러나 수사기록 어디에도 이 여관에 대한 조사나 숙박부 입수 노력 흔적을 발견할 수 없으며, 이 또한 검찰이 의도적으로 필적을 은폐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하겠다.

3. “강기훈이나 임무영이나” - 파탄난 검찰 수사

“세 사람이 쓴 업무일지가 유서필적과 같다”

진민련 사회국 업무일지는 강기훈 씨가 유서를 대필하지 않았음을 증명해 주는 증거물이다. <자료 ⑤> 진민련은 검찰의 요청에 따라 1991년 5월 11일 업무일지를 제출하였다. 이때는 진민련 측에서 검찰이 유서 대필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김기설 씨 필



검찰은 5월 18일 유서가 김기설의 글씨와 다르다며 대필 주장을 발표했다. 그러나 검찰은 군 부대에서 입수하거나 가족으로부터 입수한 필적을 은폐한 채 10년전인 고등학교 1학년(1981년) 때 쓴 필적만을 공개하였다. 더욱이 이 필적도 1986년에 작성된 것이라고 조작하였다.

가혹행위를 당하면서 5월 8일 전후의 행적에 관한 자술서를 쓰거나 김기설 씨의 유서를 그대로 쓰게 되었다. 강신욱 부장검사(현 대법원 판사)는 임무영 씨가 가혹행위를 당하는 현장에서 지휘하였으며, 전술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담배꽂이가 들어 있는 종이컵을 임무영 씨 얼굴에 던지고, 따귀를 때리는 등의 폭력을 행사하였다고 한다. 물론 검찰은 임무영 씨를 유서대필과 관련하여 조사한 내용 중 7월 9일자 진술조서 이외에는 다른 기록을 은폐하였다.

검찰은 임무영 씨에게 아무런 소득도 얻지 못하자 7월 9일부터 강기훈 씨에게 업무일지를 조작하였음을 자백하라고 다그치기 시작한다. 그러나 임무영 씨와 이동진 씨에게는 세 사람이 공모하여 업무일지를 조작하였다는 사실을 밝혀내기 위한 조사를 진행하지 않았다.

결국 업무일지를 세 사람이 썼다는 사실은 국과수의 감정이 영터리임을 증명하는 것이며, 임무영 씨를 유서대필범으로 수사하는 것은 검찰이 강기훈 씨를 유서대필범으로 몰고 간 모든 수사가 파탄났음을 입증하는 것이었다.

4. 목적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은 반인권 검찰

잠 안 재우기, 욕설, 폭행, 협박 다반사

송요 참고인 재판 출석 방해

"고등학교 중퇴자는 지식과 문장력이 부족하여 유서도 못 쓴다."며 고인의 명예훼손

정권에 항의하여 분신 사망한 희생자들의 숭고한 뜻을 왜곡하여 운동 조직에 의해 조종을 받고 분신을 했다는 어이없는 발상을 해낸 검찰은 온갖 강압 수사를 통해 짜 맞추기 수사를 벌일 수밖에 없었다. 검찰에 연행된 사람들의 거의 다 잠을 자지 못하거나 심한 욕설을 동반한 옥박지르는 식의 조사를 받았다.

김철이 유력한 증인으로 내세우는 홍성은 씨의 경우 1991년 5월 13일 연행된 이후 15일 밤 검찰수사관과 집에 잠깐 들린 것을 제외하고 17일까지 약 100여 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강압과 협박'으로 홍성은 씨의 허위진술을 얻어낸 후, 곧바로 재판 전 증인신문을 통해 홍성은 씨의 진술을 '증거'로 보전해놓고 홍성은 씨가 나중에 진실을 말하기 어렵게 1달 이상을 검찰의 보호 아래 외부와의 연락을 차단하였다(재판 전 증인신문은 변호인의 조력 없이 행해지는 등의 문제가 많아 후일 '슬롯머신사건'과 관련하여 헌법재판소에서 위헌판결이 내려진 바 있다).

홍성은 씨는 1993년 10월 11일 검찰청 민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당시 내 수첩에 적힌 김기설 씨의 이름 전화번호는 강씨가 적어준 것이 아니었으나 검사가 협조하지 않으면 구속시키겠다고 협박해 검찰의 의도대로 진술했다."고 폭로하면서 2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려고 했으나 검찰수사관이 하루 전날 집으로 찾아와 압력을 행사하여 출석하지 못했다고 밝혔다(한겨레신문, 93. 10. 12.).

강기훈 씨에게도 40시간 동안 잠을 재우지 않고 수사를 하였으며, 검사들은 강씨에게 욕설 등 온갖 모욕적인 폭언을 동반한 반인권적인 수사를 조사를 진행했다. 임무영 씨의 경우에도 특별조사실에서 잠 안 재우기, 허벅다리 짓밟기, 안면 구타 등 가혹행위를 당하고 강신욱 부장검사로부터도 직접 따귀를 여러 대 맞는 등의 강압수사를 받았다. 검찰은 임무영 씨를 유서대필 혐의로 연행한 이후 48시간이 가까워지자 집시법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하여 구속한 상태에서 유서대필 혐의를 계속 수사하였다.

검찰은 고인의 명예도 훼손할뿐더러 저학력자에 대한 지독한 편견을 가지고 있었다. 검찰은 공소사실에서 "김기설은 광탄종합고등학교 1년을 중퇴한 학력의 소유자로 지식과 문장력이 부족함에도 피고인(강기훈)의 지식과 문장력을 이용"하여 유서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하였다. 대단한 문장력

을 요구하는 내용의 글도 아닌 유서를 고등학교를 중퇴하였기 때문에 직접 쓸 수 없다고 주장하여 고인의 명예를 훼손한 뿐더러 저학력자들에게 편견을 여지없이 드러내고 있다. 그러면서도 검찰의 김기설 씨가 군 시절 동창에게 보낸 편지는 증거로 법원에 제출하고 있다. 그 편지는 유서보다도 문장이 더 뛰어나다.

검찰은 운동권이 목적을 위해서라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고 색안경을 끼고 있지만, 사실은 자신들이 있지도 않은 분신배후를 찾기 위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반인권의 범죄자들이었다.

5. 뇌물을 받고 구속된 국과수 문서분석실장을 비호하는 검찰

"만약 김씨가 허위감정과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면 검찰 몇 명은 옷 벗을 각오를 하라."
검찰, "돈은 받았지만 허위감정은 없었다."

1992년 2월 17일 강기훈 씨의 필적과 유서가 같다고 감정한 김형영 국과수 문서분석실장이 오랫동안 뇌물을 받고 감정을 해온 혐의로 구속되었다. 김형영 씨는 1980년에도 허위감정 혐의로 구속되었다가 동료 감정사의 감정으로 풀려난 바 있으며, 98년에도 토지사기단과 결탁하여 감정한 혐의로 구속된 바 있다. 김형영 씨는 소송 중인 양쪽 당사자로부터 돈을 받기도 하였다.

강기훈 씨 2심 재판을 앞두고 터진 김형영 씨 뇌물수수 및 허위감정 의혹에 대하여 검찰은 소극적으로 수사에 임하였고, 결국 "돈은 받았지만 허위감정은 없었다."며 수사를 시작한 지 6일 만에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하면서 서둘러 조사를 마무리하였다. 당시 제기되었던 허위감정 여부나 문서전문위조단 등의 의혹에 대해서 검찰은 외면을 하였다.

한겨레신문은 1991년 2월 19일자 "국과수 '기짓감정' 수사 뒷얘기"에서 "1월 중순께 문서위조단

사건을 수사하던 서울지방경찰청 특수기동대 소속 수사관들이 김형영 씨에게 인쇄소에서 인영 등을 복제해간 사실을 추궁하며 1시간 가량 연행조사를 벌이자 ... 경찰에서 풀려난 김 씨는 며칠 뒤 형사1부에 조사받은 사실을 알렸고, 이에 발끈한 한 간부검사는 경찰 간부에게 '만약 김씨가 허위감정과 관계없는 것으로 나타나면 검찰 몇 명은 옷 벗을 각오를 하라.'고 호통 치며 불편한 심기를 보였다는 게 검찰 관계자의 귀뜸이다."고 보도하고 있다. 당시 김형영 씨가 연락한 형사1부는 강신욱 검사가 부장으로 있었다.

6. 대표적인 정치사건인 유서대필 조작사건, 진상규명 필요

"상식과 진실의 승리를 위하여"
유서사건 담당 검사 퇴진해야"

1991년 강경대 타살 이후 잇따른 분신으로 위기에 몰린 노태우 정권은 5월 7일 청와대 고위당정회의에서 잇따른 분신사건의 배후관계를 철저히 수사하기로 방침을 정하고(한겨레신문, 91. 5. 10. <분신배후 검찰 주장의 허구성>), 5월 8일 정해창 청와대 비서실장 주재로 삼청동 안가에서 서동권 안기부장, 이종남 법무장관, 최병렬 노동부장관 등이 참여하여 치안관계 대책회의를 열고 분신자살 배후를 수사하기로 결정하였다. 이후 정구영 검찰총장은 분신자살사건의 배후에 이를 부추기는 조직적 세력이 있는지 철저히 조사하라는 긴급지시를 전국 검찰에 내렸으며, 유서사건에는 강신욱 서울지검 강력부장 등 10여명의 검사가 대거 참여하게 된다.

안기부 또한 6월 29일 전민련을 압수수색하여 다량의 필적을 압수해 갔으며, 7월 7일에는 안기부에 연행된 전민련 활동가 김형민, 정윤서 씨를 삼청동 안가에서 강기훈 씨와 대질조사를 하는 등 검찰의 유서대필사건에 적극 협조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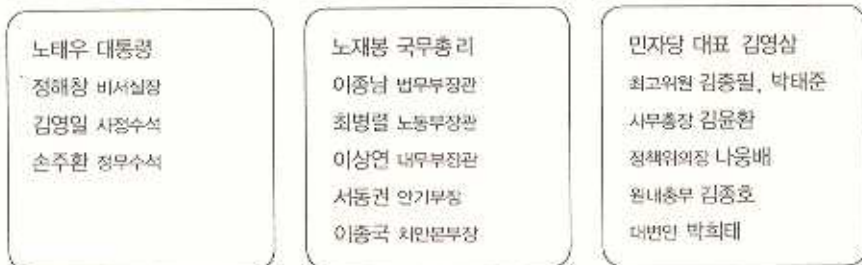
대한변협은 93년 7월 '유서대필 사건'을 대표적 인 정치 판결로 지목하고 이 재판을 담당 한 판사들 을 정치판사로 규정하여 퇴진을 요청한 바 있다. 이는 검찰에게도 그대로 적용되어야 한다.

과거 공안기관에 저질러진 수많은 조작사건에

대하여 진상규명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다. 마땅히 유서대필 조작사건도 건정 한 상식과 진실이 승리한다는 사례를 남기기 위해 서라도 진상규명이 이루어져야 한다.

강기훈 유서대필 조작사건 체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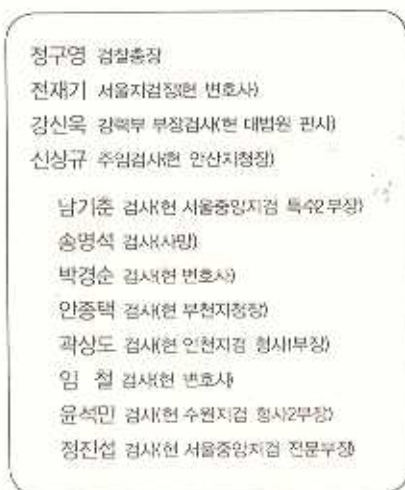
(91년 5월 8일 현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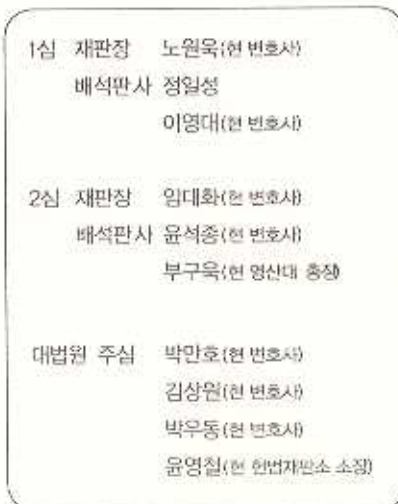
5월 7일 고위당 정치의 '분신 배후 수사 방침'

5월 8일 차인관계장관회의 '분신 배후 수사 결정'

| 검찰 |



| 법원 |



대검 문서분석실

국과수 김형영(문서분석실장, 현 재일문서검정원 원장)

‘강기훈 유서대필 조작사건 진상규명 대책위원회’ 발족 선언문(안)

14년 전인 1991년, 강경대열사 폭력살해사건으로 최대 위기를 맞은 노태우정권은 ‘공안정국’을 조성하고, 검찰과 경찰, 안기부와 일부 수구인론을 동원해 ‘강기훈 유서대필사건’을 조작해냄으로써 위기정국을 돌파하려 하였다. 상식을 지닌 인간으로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유서를 대신 써주고 자살을 방조했다’는 반인륜적 사건으로 강기훈이라는 한 인간을 폐물아로 몰고 민주세력을 도덕적으로 매장하려 한 것이다.

아울러 당시 법원은 민주양심세력이 제시한 모든 정황자료와 증거, 필적감정 등을 무시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필적 감정만을 유일한 판단 근거로 삼아 유죄를 확정함으로써 이에 가담하였다.

이렇듯 노태우정권이 만들어낸 이른바 ‘강기훈 유서대필사건’은 그것 자체가 우리 현대사의 모순을 극명하고 집약적으로 표출한 대표적인 반인륜적, 반인권적 국가범죄 행위이다. 또한 ‘유서대필 조작사건’은 국가권력과 일부 허수인들의 합작으로 진실과 시대의 양심을 감옥으로 밀어 넣은 ‘한국판 드레퓔스사건’이다.

이 사건의 피해자는 3년간의 억울한 옥고를 치른 강기훈만이 아니며, 그 아픔은 현재도 계속 진행되고 있다. 관계사건으로 동료들이 옥고를 치렀고 당시 민주화운동을 같이 했던 선배와 동료, 후배들 역시 깊은 자괴감에서 아직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진실과 양심을 끝까지 지키고 밝혀내지 못한 채 방관자로 머물러 있었던 우리 모두들 역시 동시대의 피해자이며 방조자였음을 깊이 자책한다.

우리는 100여년 전 권력의 횡포와 광기를 뚫고 ‘진실은 끝내 승리한다’는 당연한 진리를 되새겨준 에밀 졸라의 말을 떠올리며 다짐하고자 한다.

‘나는 궁극적 승리에 대해 조금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더욱 강력한 신념으로 거듭 말합니다. 진실이 행군하고 있으며 아무도 그 길을 막을 수 없음을! 진실이 지하에 묻히면 자라납니다. 그리고 무서운 폭발력을 축적합니다. 이것이 폭발하는 날에는 세상 모든 것을 휩쓸어버릴 것입니다’ (에밀 졸라, 『나는 고발한다』중에서)

우리는 국민과 함께 14년 전의 ‘반인권 국가범죄’ 행위의 진상을 낱알이 밝히고, 故김기철 열사와 강기훈의 명예회복을 만드시 이룰 것이다. 이에 우리는 오늘 [강기훈 유서대필 조작사건 진상규명 대책위원회]의 발족을 공식 선언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과거사의 올바른 청산은 시대적 소명이자 전 국민의 열망이다. 개혁 법안이 연속적으로 좌절되는 상황을 목도하면서, 우리는 국민과 더불어 심각한 우려와 분노를 금할 수 없으며, 과거사청산법을 비롯한 개혁법안의 조속한 법제화를 촉구한다.

- 우리는 유서사건 당시 담당검사와 판사들이 현재에도 특수부, 대검, 사법부의 주요요직에 포진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하며, 검찰개혁·사법개혁을 위해 이들을 인사 대상에서 완전히 배제할 것을 요구한다.

아울러 당시 법원이 유일한 유죄판단 근거로 삼았던 필적감정 담당자 前국립과학수사연구소 문서분석실장 김형영씨의 양심선언을 촉구한다.

- 최근 국정원·국방부·경찰·검찰 등 국가기관들이 자체적으로 과거사 진상규명에 나서고 있는 일련의 상황변화를 직시한다. 우리는 이러한 과정이 자기고백을 통한 철저한 진상규명,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및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의 확보와 제도적 개혁, 과거청산의 가시적 조치로 이어지길 기대한다.

- 우리는 '강기훈 유서대필 조작사건'이 과거사 청산 사안 중 하나의 주요 의제로 반드시 설정되어야 함을 분명히 한다.

과거사를 다루는 각 기구와 위원회는 한 인간에 대한 인권을 무참히 짓밟으면서 정권의 위기를 유지하고자 했던 군사독재정권과 그 하수인들의 천안공노할 음모를 만천하에 명명백백히 밝혀야만 할 것이다.

이제 우리 【강기훈 유서대필 조작사건 진상규명 대책위원회】는 '올바른 과거청산을 위한 범국민위원회'와 함께 역사적 진실 규명과 과거청산이라는 시대적 과제에 전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며, 제 정당·민주시민단체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 동참을 촉구한다.

2005년 3월 29일

강기훈 유서대필 조작사건 진상규명 대책위원회

강기훈 유서대필 조작사건 진상규명 대책위원회

전체회의 (공동대표 및 위원 연석회의)

공동대표단

김상근(목사, 前 제2의 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상임위원장)

박정기(박종철 열사 부친)

이부영(단국대 민주동문회 회장, 前 전교조 위원장)

이창복(경기대 이사장, 前 전민련 상임의장)

임기란(前 민가협 상임의장)

함세웅(신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

상임대표

이창복(경기대 이사장, 前 전민련 상임의장)

집행위원장

김선택(前 전민련 집행위원장)

사무국

박래균(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김진수(단국대 민주동문회)

염규홍(전 유서사건 공대위 간사)

이창희(단국대 민주동문회)